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부단히 생애에 전념하여 땀 흘리는 노고를 통해 획득하는 재화로 생애의 삶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오로지 인간의 도리를 찾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람의 마음 구석에는 어둡은 모습으로 우연의 요행을 기대하는 사행심리가 자리잡고 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 두역사니는 제 주인의 이성을 마비시키곤 차마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심신을 망진하게 하여 마침내 한 인간을 피폐의 나락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러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는 개인 당사자의 절제와 단호한 의지로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건전한 삶의 터전을 고양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바로 그러한 계기를 주도해 나가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각종 제도를 만들어 가며 소위 사행 산업을 조장하기에 앞장선 형국이라 참으로 개탄할 상황이다.

이미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게임 산업의 하나인 '바다이야기' 사건은 인가 과정부부 실제 시중에 판매되기까지 그야말로 북미전의 양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이번엔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가 11월부터 인터넷으로 살수 있는 로또 복권을 새로 허용한다고 하니 그저 아연할 뿐이다. 지금만 해도 구멍가게마다 로또 복권이 팔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는 안



불자 세상보기

최순열
동국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로또의 바다’에 빠진 나라

방에까지 로또 복권 가게를 개설하여 전 국민들에게 너도나도 복권에 돈을 털어 넣는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일을 정책이라고 시행하겠다는 난립한 복권을 통한 조정하고 당점 확률을 높였다는 명분은 참으로 공색하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각종 복권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행성 사업만 해도 가히 이 나라가 '도박왕국'이라고 비난을 받기 족한데, 인터넷복권까지 가세하면 결국 그 사행성의 폐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한번만 잡되면 끝내준다'는 요행심리에 목을 매는 계층

은 하루하루 힘겨게 사는 서민대중들이었다. 결국 그들은 건전한 삶에의 매진보다 사행의 그늘에 빠져들어 더욱 고달픈 일상을 망진하거나 이윽고 자멸의 길에 접어들기 마련이다.

그 뿐인가. 경제적 폐해도 예사롭지 않다. 얼마 전 모 경제연구소가 산출한 바에 의하면, 민간 소비에 의해 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자금이 도박시장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액수가 2조 7000억원 규모라고 한다. 재정부의 추계로도 사행성 도박 산업의 규모는 총 63조에 이른다니, 결론은 서민들의 돈이 소수 기업업자

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일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더 이상 문화산업이니, 서민대중들의 건전한 오락산업이니 하는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정책 시행 기관을 질타하는 수준에서 그칠 일은 아니다. 사람의 심신을 피폐하게 하는 사행과 도박의 심리에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도록 개인적인 각성의 노력도 필요하고 사회적 지도층의 노력도 경주되어야 하겠다.

특히 불교계에서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와 건강한 개인의 삶을 일구기 위한 수행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보아야 할 것이다.

일찍이 불가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실천행의 지침이 있지 않은가. 율력의 수행법이 의미하는 심오한 미덕은 서민대중들의 건전한 노동관과 경제관으로 전이시켜 나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복권 같은 사행 산업은 일신의 진진한 노고 없이 일거에 타인의 재화를 특정인의 요행으로 독식하겠다는 탐욕일 뿐이다. 필경 복권에 개인에게 은혜로운 행운의 기회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라, 오로지 허망한 탐욕의 노예론서일 뿐임을 자각해야 한다.

무지한 욕망의 절제와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인간의 참살이의 방식에는 결코 복권이라는 요행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9월 27일 조계사에서 제3기 조계종환경위원회 발족함과 동시에 불교환경의제21과 불교환경연장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지난 1991년 리우회의 이후 세계의 모든 국가와 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동참하여 지구환경의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서 의제21을 제정하여 실천하여 왔다.

불교환경의제21도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환경친화적 가르침과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시대적 문제인 환경(環境)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실천사업이다.

종단과 관련단체, 사찰과 사부대중이 동참하여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은 분명히 시대적인 문제에 적극 동참함과 함께 불교적 장점을 오늘에 살려 이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는 사부대중의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번에 선포한 불교환경의제21은 기본외의 분야별제로서, 환경친화적인 생활과 수행, 생태사찰 만들기, 수행환경 지키기, 사찰과 지역공동체로서 각 분야별 실천해야 할 구체

‘환경의제21’ 실천만 남았다

적인 행동계획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도 말만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부터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운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부대중의 의식전환과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동참행동이 필요하다. 의제21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과 인력양성과 교육과 홍보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모범 사례개발과 포상 등 장려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체적인 평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종단과 종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각 사찰과 단체, 불자들도 의제21 실천의 실질적인 주체이므로 적극적인 동참과 생활속에서의 실천행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의제21의 선포는 불교계가 우리나라의 환경을 책임지고, 선도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다. 의제21의 실천과제들을 불교계 전체가 이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포교활동으로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 이병인(부산대 지역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국책은행의 방만경영

만족왕(滿足王)은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의 궁궐에서는 정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며 이로써 받아들이나. 기강과 규율을 국가를 바로 세우고, 벌할 것은 벌하고, 마음의 이기심과 더러움을 없애고 항상 선정을 닦아 정법을 즐겨워하노라." (화엄경)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금융공기업 감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다. '방만 경영'과 주인 없는 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임직원 급여에서부터 복지후생, 용역계약 등에 이르기까지 민간 기업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평균 연봉은 8천2백만원, 산업·중소기업·수출입 등 3개 국책은행은 7천7백만원으로 3대 시중은행보다 각각 10~20%씩 많았다. 3개 국책은행장의 연봉 역시 평균 6억원이 넘었다. 일부 국책은행의 청원경찰과 운전기사의 평균 임금은 6천만원에서 많게는 최고 9천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국책은행들은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경영 실적이 호전된 것이 아닌데도 과도한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복지후생 운동 등이 그야말로 불 쫓듯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는 납득하기 힘들다. 국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실태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해를 같이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경영행태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 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임·직원을 위한 기관'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정부와 국책은행들은 올곧은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은행의 은행과 국민을 위한 은행으로 개혁을 해야 할 때다. 국책은행의 임·직원들은 지금 자신들이 받는 임금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 노병철(경제부 기자)

기고 재가논쟁을 마치고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각사는 광주의 중심 총장소에 자리한 도심포교당이다. 평소 도심 포교는 물론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을 위해 고민하던 중, 현대를 살아가는 재가자들의 신행을 재가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원각사는 급변 들어 대응전 중수, 누각 건립 등 숙원불사를 마치고 이를 기념해 '재가논쟁'을 준비했다.

수행에 목마른 불자 많아... 더 많이 열리길

원각사 재가논쟁은 '재가불자 신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8월 11일부터 주 1회씩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6회에 걸쳐 펼쳐졌다.

이번 원각사 재가논쟁은 다른 지역에서 시도된 논쟁과 몇 가지 측면에서 면면을 달리하고자 했다. 먼저 승가 위주였던 논쟁의 논주와 토론자들을 재가자 중심으로 꾸렸다. 광주 전방에서 활동하는 각 수행 단체와 불자들이 직접 나와 자신의 신행을 중심으로 발제하고 토론

에 참여했다.

예전의 논쟁이 스님과 불교를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불교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논쟁이었다면 원각사에서 시도된 논쟁은 발심은 하였으나 불교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말라하는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자들의 참여도 눈에 띄게 달라 보였다. 그동안 사찰 행사 때면 외곽으로 뿔뿔히 퍼져서 참여도가 높았던 젊은 층은 무엇보다 보람있었다. 또한 연령층이 젊어져 호남불교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재가불자들이 모여 실천 가능한 수행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 뜻이 깊다고 하겠다.

세터민 지원 현실적으로 해야

저는 2003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세터민입니다. 세터민들은 남한에 오기까지 수많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남한의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 너무나 당황하게 합니다. 몇 년을 오직 북쪽하는

어나 평소 금급하던 것을 묻고 답하는 토론형식으로 이뤄진 점도 호응을 받았다. 이번 논쟁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불자들이 수행에 목말라하는 사실이다.

아울러 논쟁을 통해 논의된 가정에서의 불상 모시기나 부처님 경건 읽기 운동 전개에 대한 논의는 정제된 한국불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불자들의 토론문화 부재이다.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을 이끌자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재가논쟁이 처음 시도되어 생소하다 보니 당연한 면나는 문제였고, 앞으로는 강이 계속되면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 믿는다.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하다가 그만 멈춰서면 새로운 시도들은 희망의 빛이 바래진다고 생각한다.

이번 논쟁이 부족함이 없지는 않았지만 광주, 호남 나아가 한국불교의 희망에 불꽃이 되고자 시도했다. 한국불교의 자화상을 점검하고 미래불교에 희망을 더하는 계기가 될것을 확실히 이러한 논쟁이 더 많이 열리길 기대한다.

도제(광주 원각사 주지)

을 잘 볼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해체되고 맙니다. 비록 저는 한때의 인연으로 기독교를 종교로 삼고 있지만, 불교에도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세터민을 교육시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김성수(가명·여주교도소)

‘연대’ 민평 심민섭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입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병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귀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來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입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병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功)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무공황정
現 근 신선암 주지
現 참선공 협회 총재
現 치유명상 협회 총재
現 입상최면 협회 총재

- ◆ 참선공의식 사례
 -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몸이 180°돌아가서 한의원 병원, 기공,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월부터 오른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걸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었다.
 -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몰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생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병의 되어 눈에 뻤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 앞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추세가 완쾌되었다.

지도자고급과정
 • 일제일 : 2006. 10. 12 (목요일) 10. 14 (토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선착순 예약)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불교심리철학	서양 심리철학
사마타 수행법	위빠사나 수행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병의·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조상영가 보는법	육효 신 비법

근 신선암 대한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